

2017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1 | ③ | 2 | ④ | 3 | ② | 4 | ⑤ | 5 | ② |
| 6 | ⑤ | 7 | ⑤ | 8 | ⑤ | 9 | ① | 10 | ① |
| 11 | ③ | 12 | ③ | 13 | ③ | 14 | ④ | 15 | ② |
| 16 | ② | 17 | ③ | 18 | ② | 19 | ① | 20 | ④ |

1. [출제의도] 친구 관계의 윤리 이해하기

(가)는 유교 사상이며, ㉠은 '친구'이다. 유교 사상에서는 친구 간에 믿음과 의리로 서로를 대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勸勉)해야 한다고 본다. 즉 친구는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2. [출제의도] 부모 자녀 간의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오늘날 물질적 풍요만으로 효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효는 물질적 풍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맹자가 강조하는 양구체(養口體)와 양지(養志)를 통해 효는 물질적 풍요와 부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양지, 즉 정신적 공경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배려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나당스의 배려 윤리이다. 배려 윤리는 여성이 지닌 특성에 주목하여 정의 윤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배려 윤리는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 타인과의 관계, 상황의 특수성,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4. [출제의도] 칸트의 의무론 이해하기

같은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면서 오로지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보편적 도덕 법칙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배아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같은 배아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보며, 배아가 가진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율은 배아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으며, 배아는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만을 지닐 뿐이라고 본다. 한편 갑과 율은 모두 인간의 발달 과정이 연속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6. [출제의도] 응용 윤리학 이해하기

그림의 △△ 윤리학은 응용 윤리학이고, □□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이다. A에는 응용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가 들어가야 한다. 응용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과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도덕적 쟁점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다.

7. [출제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니부어의 글이다. 니부어는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인간도 그가 속한 집단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쉽다고 보았다. 또한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지의 함양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해하기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공직 수행의 올바른 자세 이해하기

(가)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이 지녀야 할 자세로 청렴을 강조하였다. (나)의 퍼즐 속 가로 낱말 (A)는 '공공선(公共善)'이며, (B)는 '전문직(專門職)'이므로 세로 낱말 (A)는 '공직(公職)'이다.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청렴, 절제,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정성, 국민에 대한 봉사, 도덕적 의무 등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0.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같은 시장 경제에서 이윤 추구를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으로 본다. 반면 율은 기업이 합법적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과 율은 모두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11. [출제의도] 엘리아데의 종교관 이해하기

(가)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적인 삶 자체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聖]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성스러움과 세속이 조화롭게 공존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보아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결과의 유용성을 따져서 인간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인격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

13.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같은 베카리아, 율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임을 들어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반면 칸트는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상응하는 응보에 있으며, 사형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사형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 상품화 이해하기

제시문은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성을 수단화하는 것이며,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 상품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성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변질시킬 수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인격권이자 기본적 권리로, 자신

과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15. [출제의도] 분배적 정의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같은 노직, 율은 롤스이다. 노직은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최소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율스는 천부적 자질과 능력을 사회의 공동 재산으로 보았으며, 최소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롤스와 노직 모두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관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6. [출제의도] 예술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언자는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이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의 올바른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심미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의 가치를 오직 예술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하며, 예술의 도덕적 가치보다 미적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17. [출제의도] 환경 윤리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의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상가는 싱어이며, 어떤 서양 사상가는 칸트이다. 싱어는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칸트는 인간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니며, 동물을 합부로 대할 경우 인간 자신의 도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은 동물에 대해서는 간접적 의무만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과학자의 윤리적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과학자가 진리의 발견을 위한 연구 활동 과정에서는 객관적 학문 탐구의 방법에 따라 가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에서는 미래 세대와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자는 그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해야 하며, 과학 기술이 후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9. [출제의도] 잊힐 권리의 쟁점 이해하기

같은 잊힐 권리의 보장이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율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잊힐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갑과 율은 잊힐 권리의 보장이 대중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가에 대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장자의 죽음관 이해하기

(가)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이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순환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죽음은 삶과 차별이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